

Wildflower Letter

들꽃편지 685

2026.2.19. 우수
<https://cyw.pe.kr>

흐르는 기쁨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날은 비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호적신고를 하러갔는데 태어난 아들이름도 정하지 않고 갔다가 호랑이와도 견줄 수 있는 용호상박의 용(龍)처럼 되라고 용에다가 비가 오니까 그냥 비우(雨)를 붙여서 제 이름을 '용우'라고 지었다는 슬픈(?) 얘기를 어머니께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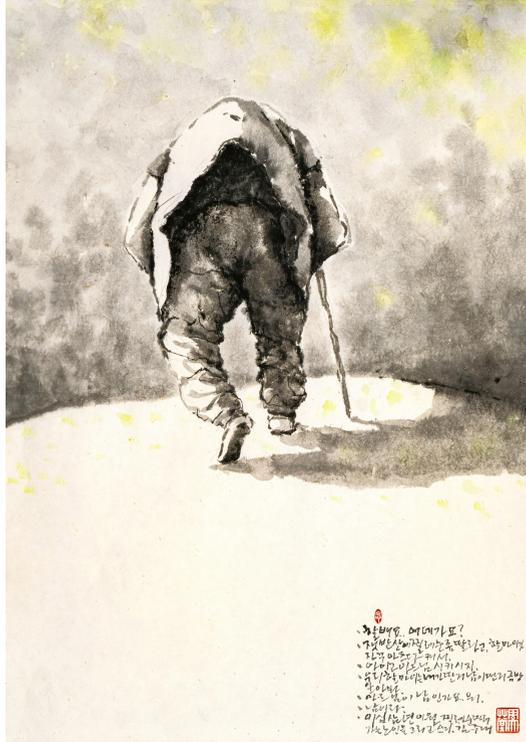
뽕뽕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고 새봄에 비(雨)가 내리면 온 세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우수(雨水)는 빗물이라는 뜻이며 '풀어지는 절기'입니다. 매서운 꽃샘추위가 반짝 하기도 하지만 어김없이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돌고 초목에 연초록 싹이 올라오며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입니다. “땅에는 아직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 온 땅을 적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푸우~~~ 하고 숨을 쉬더라.”(창2:5-7요약) 메마르고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에 ‘물’이 솟아나자 그 땅이 풀어지고 ‘흐름’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마도 사람을 만든 그날은 우수(雨水)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생명의 흐름이 에덴동산 중앙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강이 되어 흘렀다고 합니다.(창2:10-14절)

아담의 범죄로 실낙원(失樂園)이 된 이후 굳어버린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물’이 흐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이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요7:38) 이 봄에 용(龍)이 비(雨)를 만났습니다. 음하하!



♥용우라는 이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최용우 올립니다.



고향 다녀오는 길

이른 새벽 차도를 자유롭게 걸어가던 허리 굽은 노인이 차를 세운다.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왜 빵 안 해?”
 (왜 빵빵 하냐고 나무라는 걸로 거꾸로 듣고) “아, 여기 저속으로 가야 하는
 데라서 선생님 뒤따라 천천히 왔지, 빵빵 안 했는데요?”
 “빵빵 하라고 이런 데서는 빵빵 해줘야지 귀 어둔 어른들도 길을 비키지.”
 “아, 네. 차도 거의 안 다니는 길이고 해서요.”
 “앞으론 빵빵 해, 그래야 길을 비키주지.”
 “네~ 잘 알겠습니다, 빵빵~”

글 그림 / 김주대 작가 페이스북

깨어 기도하라

‘깨어남’이야말로 종교의 모든 것이다.
‘나’(ego)라고 하는 물건이 따로 있다는
착각과 마몽에서 깨어나
천상천하에 홀로 존귀한 ‘나’(the self)로 돌아가는 것이
부처(깨어난 사람)의 길이라면,

자기중심과 이기욕의 죄악 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의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틈틈이 가르치셨거니와
그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날 밤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막14:38)고 이르셨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76 도둑놈

4시20분이면 어김없이 성경 찬송가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새벽기도회 가기 위함입니다. 20여분을 걸어갑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새벽공기가 참으로 맑고 시원합니다. 한 참 걸어가다 밤송이가 길 위에 여러 개 떨어져 있습니다.

“야! 밤이다.”

제법 알이 큰 밤이 4개나 됩니다. 길옆의 밤나무에서 떨어져 길가에 굴러 나온 것입니다. 호주머니가 볼록합니다.

“횡재했네”

좀 더 가니 시골 강아지들이 여기저기서 짖어댁니다.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있는 일이지만 오늘은 강아지 짖는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도둑놈 도둑놈”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문턱을 오르고서야 호주머니에 볼록한 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기도회 시간 내내 회개 하였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다시 집으로 오면서

밤나무 밑에 알밤 4개를 던져 놓았습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소꿉친구

길을
걷다가
문득
뒤돌아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
다 어디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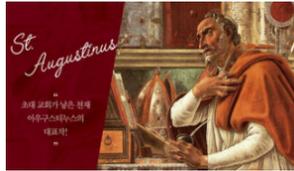
최용우 제12시집<일상의 기적>



최용우 1-16시집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p>일상의 기적</p>	<p>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짝 숨어있는 소중한 기적의 순간들을 찾아봐요</p> <p>일상의 기적</p> <p>최용우 지음 210쪽(컬러)15000원 퍼플</p>	 <p>최신간</p> <p>일상의 여유</p>	<p>뭐가 그리 바쁘세요? 바쁘게 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p> <p>일상의 여유</p> <p>최용우 지음 210쪽(컬러)17000원 퍼플</p>
---	--	--	--

죽음의 기원에 대하여



366.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은 육체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

죽음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라 하지만, 죽음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은 지성이나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생명체, 분명히 살아 있던 육체가 어김없이 죽어 간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죽은 뒤 그들 영혼이 평온한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건강한 육체로 산다면 그만큼 더 행복할 것이다.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오롯이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견해에는 동조하게 되리라.

367. 부활을 한 뒤 그리스도교인들의 육체는

죄를 저지르기 전의 육체보다 뛰어나다.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은 이제 육체가 없어진 것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고 모든 감각이 사라진 뒤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그들의 육신은 희망을 품고서 안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시편16:9). 플라톤이 말하듯이 영혼은 몸이 잊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분은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며,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잃지 않으리라고 보장하셨다.(눅21:18).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바람과 인내로 육체가 부활하기를 기다린다. 육체를 지니고 있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68. 낙원의 영적 의미

우리가 낙원을 더없는 행복에 이른 이들의 삶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며, 거기서 흐르는 네 강을 지혜, 용기, 절제, 공의 네 가지 덕목으로, 낙원에 있었던 나무들을 모든 이로운 교훈으로, 나무 열매들을 의로운 이들의 습관, 생명 나무를 온갖 선의 어머니인 지혜, 선악과를 계명을 깨뜨림으로써 오는 경험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다. -(계속)

서로(1)



1. 서로 (알렐루온)

어떤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와 모퉁이를 돌아 교회가 안 보이는 곳까지 오는 동안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아마도 제가 그날 그 교회에 왔다가 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저는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 왔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으음~”하고 죽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더니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라서 누가 말을 걸면 싫어하기 때문에 결눈질로 지켜봤을 거라네요.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호. 혹시 시...신천지?” 하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먼저 보낸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기도하라’... 등등 ‘서로’라는 단어를 60번 이상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 내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서로’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서로’는 헬라어로 알렐론(ἀλλήλων)이라는 상호 대명사로 ‘서로’ ‘피차’ ‘각자’ 등 두 명 이상의 주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로’는 항상 복수형으로만 사용되며, 주격은 없고 속격, 역격, 목적격으로 격변화합니다. 이것은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 하지 않고 있는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8290)

2. 서로 우애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우애하고’ -로마서12장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고 합니다. 우애(友愛)를 개정개역성경 외 ‘서로 사랑하고’(바른,우리말,현대,공동),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새번역),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kjv),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흠정) 서로 깊이 아끼고(가톨릭) ‘서로 따듯이 사랑하고’(현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깊이 아끼고, 서로 따듯하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말은 가족을 향한 다정하고도 강력한 애정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신자들이 서로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처럼 우애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며 한 지체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12:4)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은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갈6:10)에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서로 우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 온몸과 영혼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정결해지고 더러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다음에 지체들과 우애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오는 사랑 에너지를 가지고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8291)

3. 서로 먼저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먼저하고’ -로마서12장10절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하라고 합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존경은 나보다 상대방을 특별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먼저 칭찬을 받고, 먼저 인정을 받고, 먼저 주목을 받아야 나도 너를 똑같이 대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라고 합니

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동생과 싸우고 삐쳐있으면 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랭이가 물어갈 새끼어들, 비싼 밥 쳐먹고 싸워? 빨리 사과 안 해? 먼저 사과하는 놈이 성이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야! 미안, 세끼야!” 하고 억지로 먼저 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성(형)은 진짜 억울하네요. 동생이 먼저 사과를 하면 동생이 성(형)이 되고, 형이 먼저 사과를 해도 원래 형은 성(형)인데.

어떻게 ‘서로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 주셔서 생명까지 희생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해 보면 존경받는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천국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른 지체들을 먼저 존경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8292)

4.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로마서12장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인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마음들이 서로 잘난체를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리더십(Leadership)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해서 신학공부를 하고 리더(Leader)가 되기는 했는데 ship(ship)이 없어서 온갖 마음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지쳐 “세상에서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요 엉엉”하고 비명을 지르며 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리더십(Leadership)이 있으면 세상에서 목회만큼 쉽고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고 서로 한마음으로 전진하면 ‘다른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과 군중들과 무리들을 리더하셨습니다.(비록 측근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의 목표가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만 보고도 즉시로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단어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8293)

5. 서로 비판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로마서14장13절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안에서 먹을 것 때문에 지체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는다며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와 제사를 용납하는 가톨릭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일이 로마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가능하면 금주,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술과 노름에 젖어있는 조선 백성들을 보고 '금주금연 운동'을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금주금연을 해야 하는 '관습'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담배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종교개혁자 칼빈은 럼주(rum)를 좋아했고, 루터는 아내가 술을 빚어 파는 주조장을 했는데 술을 못 먹는 아내 대신 루터가 시음을 전문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술을 마시란 말이나? 제가 술 이야기를 하니 지금 몹시 불편하지요? 로마교회 안에 그렇게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는다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툼거리나 누군가를 시험하게 하는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8294)

6.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덕을 세우고' -로마서14장1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서로 덕(德)을 '세우는' 일에 대해 말하고 20절에서는 덕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을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공동 롬14:20)

오랫동안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마르다와 같은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요리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자신이 한 요리를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큰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5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교회 식당에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반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살짝 숨어서 봤더니 담임 목사님 부인이 반찬을 살짝살짝 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르다 권사님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마르다 권사님은 사모님이 아무도 모르게 동네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가져다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는 사모님이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반찬을 따로 담아놓았으니 그것은 사모님과 권사님만의 행복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해피엔딩~.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8295)

7.11로 받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받고' -로마서15장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로 돌아가며 나누는 30초짜리 악수와 인사를 가지고 '서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진심어린 따뜻한 태도로, 때로는 열광적이고 격렬하게 그리고 현실적이고 깊게 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약2:1-13)

교회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초기 교회 식구들은 '가족 같은' 관계로 결속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교회는 그때부터 정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울망줄 망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세포 분열하는 것도 '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8296)

8. 서로 권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권하고' -로마서15장1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고 합니다. '권하고'는 권면하는 것, 교훈하는 것, 상담하는 것, 위로하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등등 교회 용어로는 '심방'이 아닐까요?

바울은 '서로 권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신자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한다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담긴 권면은 사실상 '충고'이며 누군가에게 충고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상담 전문가들도 "한 가지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홉가지 칭찬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홉가지 칭찬만 하고 충고는 한 가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아홉가지 칭찬은 다 잊어버리고 한가지 충고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권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친절하고, 관대하고, 성품이 바르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권하는 동기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면 그냥 권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꼭 권하여야겠다면 골로새서1장29-30절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 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8297)

9. 서로 고발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는 '피차(서로) 고발함으로' -고린도전서6장7절은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신자가 다른 신자를 대상으로 고발, 송사, 소송, 고소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이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마15-17) 둘 사이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로서의 신뢰가 '이미'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화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열시키는 영인 마귀에게 깨진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차라리 그냥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법정 고소·고발은 신앙의 도덕적 기준을 기대하는 사회적 시선에 비해 매우 아주 높은 편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들의 횡령, 배임등 형사 고소·고발 사건이 많고, 특히 교단 총회가 열리는 가을에는 어김없이 세상 법정에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추태를 벌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하고,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8298)

10. 서로 같이 돌보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 고린도전서12:25절은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교회 안에는 자신의 신분이 높은 것으로 대접받으려는 자들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깔보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분쟁 없이 서로 일치를 이루는 방법은 ‘서로 돌봄’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이 서로 어떤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몸의 각 부분은 신체의 다른 부분이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몸의 한 부분이 기뻐하면 온몸이 기뻐합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들도 기뻐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서로 같이 돌아보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서로 같이 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마9:25-26) 예수님께서서 먼저 우리를 돌아 보아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새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를 돌보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소홀히 했던 사람을 찾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8299)



11.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 갈라디아서5: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격동하고' '격분시키고' '다투거나' '시비를 걸지 말고' '싸움을 걸지 말고' 등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화가 나도록 시비를 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허영(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면, 그것은 허영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천국은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가 크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뒤집힌 나라'이며 그것을 천국의 역설 (Upside-down Kingdom)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실상은 높아지는 것이며,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눅14:11, 눅23:12)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실상 높아짐인데, 그와 반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귀의 생각(눅18:14)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피라미드 구조를 교회에도 적용시켜서 평신도-집사-권사-장로-목사의 단계로 점점 올라가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계급을 따기 위해 권사가 되려면 얼마, 장로가 되면 얼마를 내야 한다는 사탄 마귀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투기하고 비방하고 격동하고 상대방을 노엽게 하며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8300)

12. 서로 투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5: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투기'를 다른 성경은 '질투' '시기' 등으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투기(시기, 질투)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그것이 울무가 되어 시기, 질투, 모함, 공격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특히 '울범주의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옳다거나 강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더

비판하고,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은 모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노독소스'(κενόδοξος)의 함축 의미는 '속이는 것' '자랑하는 것' '큰 소리로 떠벌리는 것' 등입니다.

성도들끼리 투기(시기, 질투)하며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좇으며 서로 비교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그것은 교만과 죄절의 늪에 빠져 신앙이 병들게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고 우리를 움아매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투기는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8301)

13. 서로 짐을 지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6:2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마리의 황소가 하나의 멩에를 매는 것처럼 동료 신자의 짐을 거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자가 홀로 짐을 지고 힘겨워하다가 그 짐에 깔려 죽는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그 교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22:36)

오래전 교회에 아무개 청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걱정을 하며 "참지 말고 약 사드세요"라고 했고, 어떤 분은 "아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 한 대 맞는 것이 확실해요"라고 했습니다. 다들 진심으로 그 청년을 걱정해주며 격려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청년이 나왔는데 여전히 기침을 했습니다. "약은 먹었어요?" "아.. 아노" "참, 말을 안 듣네 병원에 가라니까.." 그 청년은 말없이 멩쩍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내에게 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청년에게 살짝 쥐어 주며 "약 사서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입니다.(요일3:18) 그러나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떠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갈6:5)고 합니다. "내가 대신 해 드릴게요"가 아닙니다. "내가 거들어(도와)드릴게요"입니다. (8302)

14. 서로 진실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서로) 참된 것(진실)을 말하라' -에베소서4장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합니다. 참된 것(truth)을 여러 성경은 '진실,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2-4장에서 집중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을 짚 설명한 다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 설명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진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의 역사는 에덴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동산에서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은 인류의 시조는 그 후손들에게 '거짓'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들은 '참된 것'이 아닌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거짓된 것들'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집어 먹을 때 눈과 손이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눈과 손이 속여서 나쁜 것을 입에 넣으면 입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고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몸이 된 지체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4: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 합니다. (8303) ©최용우

햇빛같은이야기 <https://cyw.pe.kr>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00-350쪽 내외의 책 총27권 중
2026년 현재는 13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꽃놀이 (사진:최용우)

핑핑 터지는 새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교회에서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작년에도 그전에도 그냥 쿨쿨 자면서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도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대포 터지는 소리가 핑! 핑! 났다. 이응다리 광장(시청앞)에서 '새해맞이 카운트 다운 불꽃쇼'를 하는 소리이다. 낮에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말라는 방송을 들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대포 소리가 커서 놀랐다.

복도에 나가보니 바로 눈앞에서 불꽃이 핑 핑 터진다. 마치 드론을 타고 하늘로 올라와 불꽃이 터지는 바로 옆에서 보는 것 같았다. 열심히 사진에 담았다. 지난번 호수공원에서 하는 불꽃쇼는 앞 건물에 가려 반쪽만 보였는데 오늘은 자다 말고 일어나 가장 잘 보이는 최고의 명당자리에서 불꽃놀이를 직관한 셈이다.

햇볕 따듯한 날

우리나라의 겨울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고 하는데 요즘 날씨는 '삼한사한'이 너무 춥다. 눈이라도 내리면 그나마 보상이 되는데 그냥 춥기만 하니 집안에서 옷을 두껍게 입고 곰뱅이처럼 어서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숨만 쉬는 수밖에 없다.

오후에 땀은 김밥이고 머리는 군밤장수처럼 털모자로 푹푹 싸고 운동산책을 나가지만 얼마 못 걷고 그냥 다시 컴백한다. 집 밖과 집 안의 기온 차 때문에 창문에는 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잠시만 방심하면 곰팡이가 까꿍~ 하기 때문에 물기를 열심히 닦는다.

기온은 영하인데 창문을 통해 햇볕이 쨍하니 비친다.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온 차가 가장 적은 동네가 '제천'과 '전주'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아내에게 '전주'가서 살자고 설득하는 중이다.



고구마 농사

그녀가 아침부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라는 곳에서 '고구마 -고구마 재배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고품질 고구마 생산 능력 향상'이라는 8시간짜리 온라인 강의를 종일 듣더니 다 끝냈으며 '수료증'을 뽑아달라고 한다.

그리고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 순' 반찬도 해주고 국도 끓여준다면서 고구마 두 개를 씻어서 빈 컵 거꾸로 꽂아 놓는다. "난 또.. 그제, 무슨 고구마 농사여?"

"여기 이 부분은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고, 고구마 순을 자를 때 소독하지 않은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시커먼 자국이 생기고.."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막 가르쳐 준다.

"나는 고구마 농사에는 별 흥미가 없네요. 남은 고구마 잘 정리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어 주시거나 하성~ 먹고 똥 잘 나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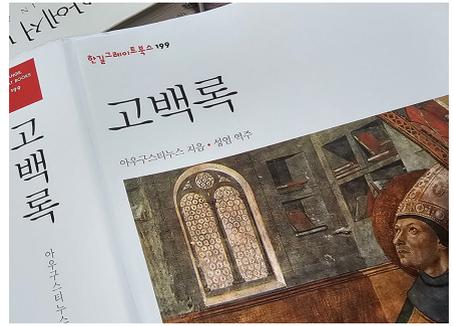
어거스틴의 고백록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오기 이전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필사되어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은 ‘고백록’이라고 한다.

세계 3대 교부(敎父Church Fathers)중 한 사람이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이 쓴 ‘고백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

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된다’는 ‘구속(救贖)의 진리’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정의한 책이다. 교보문고에서 검색하면 ‘고백록(참회록)’ 번역본이 100권도 더 검색된다. 내 책방에도 여러 번역본의 ‘고백록’이 세 권이나 있다.

햇볕같은이야기에 그동안 ‘고백록’에서 힌트를 얻은 글을 100쪽지도 더 쓴 것 같다. ‘고백록’은 어디를 펼쳐도 거기에서 글이 한편씩 쓸 수 있다. 이번에 로마교황립대학교에서 라틴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성염 교수가 번역한 ‘고백록’이 한길사에서 출판되었는데, 신청했더니 금방 도착해서 지금 내 책상에 누워있다.



성염 교수님

교부학에 관심이 많아서 교부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 만약 교부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온갖 종교들과 혼합되어 잡탕(?)이 되어갈 때, 조용히 사막이나 숲속으로 숨어들어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지고 교리를 정립한 2세기부터 8세기경까지 활동한 성자들을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교부(敎父)라고 한다. 이들은 교회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신앙을 변호하며, 성경 해석과 신앙고백(사도신경등)을 만들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한 이들이다.



교부문서 번역 분야에서 ‘성염’은 독보적인 존재이다. 교부문헌총서를 읽으며 한 없이 등장하는 ‘성염’이라는 이름... 교수님을 평생에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천안 경청의집에서 열린 북피정에 가서 드디어 뵙고 책에 싸인도 받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 까~

겨울밤에

저녁을 일찍 먹은 탓인지 출출한 겨울밤에 그녀가 “만두가 먹고 싶다...”라고 다들리게 혼잣말을 한다.

“사 오라고?” 배달을 시키면 문 앞까지 가져다주지만 가능하면 내가 가서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달비가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음..아깝다)

두툼하게 옷을 입고 만두를 사러 간다. 용포리에 살 때부터 항상 ‘수정만두’에서 사다 먹었는데, 이사 와서 보니 ‘수정만두’까지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운 시청 앞 쪽으로도 어딘가에 만두가게가 있을텐데 아직 못 찾았다.

만두 모듬을 주문하면 ‘새우 3개, 김치 3개, 기본 4개’를 준다. 첨에는 사이좋게 똑같이 5개씩 나누지만, 아내가 다 못 먹고 꼭 한 개를 남기면 내가 냉큼 주워 먹는다. 그래서 나는 입이 크니 6개, 아내는 4개를 먹으면 모두 만족함.ㅋㅋ



퐁실퐁실

서울 아이들 집에 올라갔을 때 이불이 부실한 것을 보고 쿠팡에서 두툼한 겨울 이불을 사서 보내주었다. 큰딸이 이불을 펼쳐보고 ‘퐁실퐁실 해요’라고 표현을 한다.

작년에 ‘의성어’만 200개를 모아 44조 가사 시집 <야단법석>을 펴내었는데 아직도 내가 찾지 못한 의성어가 큰딸에게서 나오다니 참 신기하고 한글은 정말 무궁무진한 표현의 언어이다. ‘퐁실퐁실’로 44조 가사시를 한 편 써 보았다.



퐁실퐁실

새이불이 퐁실퐁실 밀랑밀랑 부드럽고
푹신푹신티 따뜻하고 넉넉하고 푸짐하네
하얀눈이 포근포근 하염없이 내리던날
북극곰의 엉덩이가 나에게로 살짝왔네

새침뜨끼

저녁밥을 먹고 이응다리 한 바퀴 돌고 오려고 완전무장을 하고 나갔다. 금강변 해오름빌딩 앞 공원 의자에 ‘턱시도’인데 검은색 털이 훨씬 더 많은 고양이가 앉아서 목상을 하고 있었다.

살짝 다가가 의자 끝에 앉아 관심 없는 척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한 참 앉아 있다가 슬쩍 고양이를 쳐다봤다. 자기에게 딱히 공격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고양이가 도망가기 1초 전의 자세를 풀고 경계심도 풀고 나를 쳐다본다. “아.. 안녕.. 친해지고 싶어..”하고 눈인사를 했더니 눈을 두 번 깜빡인다.

살짝 엉덩이 터치.. 그리고 톡톡톡 했더니 머리를 내준다. 목덜미를 만져 주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얼굴을 보여주진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양이는 갑자기 다가가면 순식간에 도망쳐버린다. 밀당을 잘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눈 치우기

밤새 눈이 살짝 내렸다. 내리면서 대부분 다 녹아버리고 응달에 눈이 조금 쌓였다. 농약살포기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서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농약살포기 바람으로 눈을 날려버리고 있었다.

가을에도 길거리의 낙엽을 빗자루로 쓰는 게 아니라 살포기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요즘에는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농약살포기를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지 농약살포기의 사용 용도가 바뀐 것 같다. 그럼 앞으로는 ‘농약’이라는 단어를 빼고 ‘바람기계’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부르는지 나중에 경비 아저씨를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농약살포기로 눈을 날려버릴 생각을 하다니... 암튼 응용력이 대단하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아먹고 사막에 가서 제설차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름을 물어보니 ‘송풍기’라고 하네요)



워터 메리

세종시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메이드 인 세종’인 것 중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로컬푸드 싱싱장터>가 아닌가 싶다. 세종시가 막 시작되면서 아파트만 올라갈 뿐 변변한 마트 하나 없을 때, 주변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모아서 팔기 시작한 것이 ‘싱싱장터’의 시작이다.

세종시 농사꾼이라면 누구든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등록만 하면 대신 팔아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다.

소담동 싱싱장터에 갔다. 각종 다육이를 파는 코너가 겨울인데도 푸릇푸릇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었다. 냉이를 닮은 ‘워터 메리’라는 다육이가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꼭 참고 그냥 사진만 찍었다.



걸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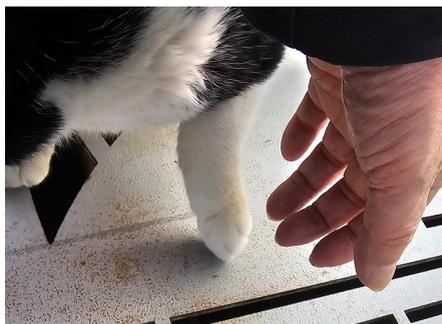
강변 해오름빌딩 앞 전망대 근처를 유심히 살펴보니 임시로 만든 고양이 집이 대여섯개 숨어(?)있었다.

지나다나는 사람들 눈에 띄면 민원이 들어갈게 뻔하니 화단 나무 뒤쪽이나 철책 사이에 집을 숨겨놓고 밥을 주고 있었다.

고양이를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밖에 어딘가로 옮겨놓은 나름 다 사연이 있는 집일 것이다. 지난번부터 친해지려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가 들어가는 집엔 ‘깜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깜냥이가 햇볕을 쬐고 있어서 살짝 다가가 아무 관심이 없는 척 판 방향을 보고 쫓고리고 앉았다. 그리고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손을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었다. 눈치를 보던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내 손에 얼굴을 부빈다.

오, 요놈. 걸러들었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 ▲제732회 월성산(313m 공주) 2026.1.10.
- ▲제733회 취암산(319m 천안) ㉔2026.1.12. 경암산
- ▲제734회 비학산316 (일출봉252m) 2026.1.23
- ▲제735회 변산(424m관음봉) 내소사 2026.1.30.

변산 내소사는 백제 무왕34년(633)에 창건된 사찰이고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앞까지 약 1km 정도의 전나무숲길이 유명하다. 그리고 대웅보전의 꽃문살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대웅보전 자체가 보물 제291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식 문양 중 최고로 평가되는 대웅보전의 연꽃과 국화 문양의 꽃창살 사방연속무늬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온다. 오래전에 월간<생명의 숲>이라는 큐티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나온 것을 보고 그해 나는 그 꽃문살 꽃무늬를 보려고 일부러 내소사에 갔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도 변산 등산을 핑계 삼아 꽃문살을 한번 더 보고 싶었다. 꽃문살은 고유의 나무빚갈과 나뭇결 위에 그대로 수놓아져 있어 절제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우수무렵 논두렁엔 냉이꽃이 지천이네

그리운 게 없어서 노루귀꽃은 앞니가 시러
 바라는 게 없어서 나는 귓불이 발갛게 달아올라
 내소사 뒷산에 핑계도 없이 와서
 이마에 손을 얹는 먼 물소리 - 「우수」 안도현

‘철’이라는 글자는 ‘사리를 분별하는 힘’이라는 뜻도 있고 ‘계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철들었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거나 경험을 쌓으면서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 또는 ‘어른스러워졌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철(계절)’을 알고 철에 맞게 살아야 ‘철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빗물(雨水)이 땅에 스며들어 잠자던 세상을 깨우는 ‘봄철’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차가운 겨울이 어느새 훈훈한 봄기운에 스르르 풀려 세상에 온기가 돕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은 지난해 낙엽이 걸려 있는 앙상한 가지에도 가만히 보니 ‘새 눈’이 올라옵니다. 아직 가지 사이에는 잔설이 남아있어 쭉 밀어 올리기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계절은 항상 사람들 보다 한발 앞서 가고 사람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아, 올해의 새봄에는 또 어떤 꽃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사진:박노해 <걷는 독서>에서)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시편으로 쓴 시편시> 404쪽 27000원(올컬러) 2026.2.27일 출간

100. <하늘일가-하나님의 발 아래> 396쪽 26000원(올컬러) 2026.1.27일 출간

99. <일상의 여유>(시16) 210쪽 17000원 2025.12.23 출간

98. <만사록 4권> 304쪽 16000원 2025.11.21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94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6.1월 재정결산

2026년 1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경희 고영국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김한빛 박근식 박승현 박옥재 배지윤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이미래 이상호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호숙 한주환 김리희정릉 들꽃교회 새벽기도 솔로몬예루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28분이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6.2.23일까지 8318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101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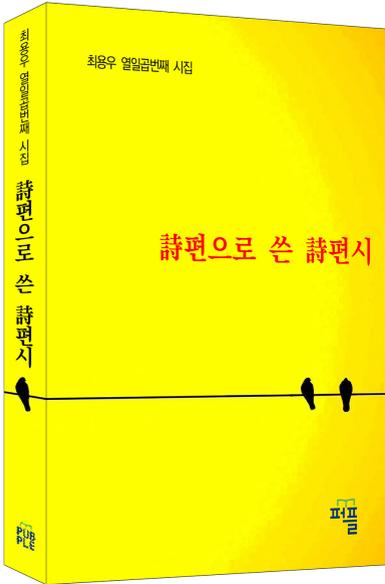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새로 나온 책

詩편으로 쓴 시편詩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최용우 404쪽 27000(컬러) 퍼플

기록이 없는 시대를 ‘원시시대’라고 하고 인간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History)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시대를 통털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시(詩)가 다윗의 시편23편이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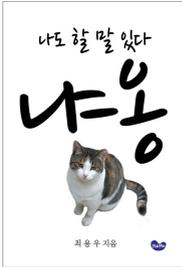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경66권 가운데 시편을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읽는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를 365등분하여 1년 동안 꼼꼼히 묵상하여 <따뜻한 밥상>이라는 묵상집을 만들기도 했고, 시편 전체를 사사구 시로 만들어서 ‘교독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별 묵상칼럼을 써서 <1189성경묵상집>을 펴내려고 준비중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시편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한 장을 읽고 머릿속에 저장한 다음 나의 고백으로 다시 시편을 써보니 시편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편 150장을 전부 시로 썼더니 약 380여편의 ‘시편시’가 나왔습니다. 매일 한 편씩 1년 동안 읽도록 365편을 쓰려고 했는데 양이 더 많아져서 단행본 책으로 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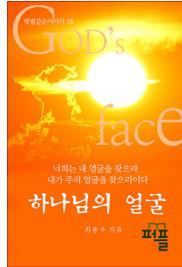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나도 할 말 있다 나옹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
엇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11,900원 31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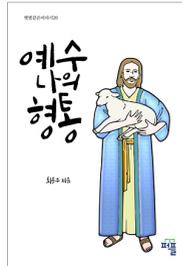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
에 모르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
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
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288편의 깊은 영성 글모음
12,100원 326쪽 퍼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
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
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 동행글 모음
12,200원 328쪽 퍼플



예수 나의 형통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조건 형
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
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예수 형통 글 모음
12,300원 328쪽 퍼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
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나를 업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야 알았대네. 288편의 하나님
과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퍼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88편의 예수 동행글 모음
14,300원 320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85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